

전 남

‘녹색곤충 주식회사’ 내년 본격 출범

전남도, 오늘 사육농가 설명회·투자자 출자 청약

전남도가 ‘곤충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곤충의 생산·판매 역할을 담당할 곤충 주식회사가 내년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곤충 사육농가가 직접 출자하는 (가칭) ‘전남녹색곤충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곤충농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 및 투자자 대상 출자청약에 나선다.

곤충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 축산농가 소득원으로 ▲장수풍뎠이 등 애완학습·행사용 곤충 ▲풍에 등에 등 환경정화 곤충 ▲가리지 등 사료용 곤충 ▲전직 곤충이 있다. 국내 생산액은 현재 2007억 원에서 2020년 7000억 원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산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곤충농가와 곤충 창업연구소, 생물 방제센터, 한국 유용곤충연구소 등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와 간담회를 4차례 갖고 출자 청약을 담당할 곤충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남 곤충 유통회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원장에 전남생물방제센터 김선암 박사를 비롯한 9명의 임원진이 선출돼 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다.

곤충 주식회사는 산업곤충의 생산 기술 보급과 수요처 발굴 등을 위해 곤충 생산농가의 출자를 통한 농가 조직화의 중심체 역할을 해 곤충산업

육성을 촉진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곤충생산 및 판매계획에 따라 출자 농가별로 계약을 통해 곤충 생산물량을 배정함으로써 참여 농가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농가로부터 납품받은 곤충을 사료 제조공장 등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에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사료회사 등은 그동안 사료원료용 곤충을 확보하지 못해 사료 개발분야 진출을 주저했으나 농가가 출자한 유통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원료의 안정적 확보 기반이 구축돼 곤충의 가족 사료 활용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곤충 생산농가 역시 그동안 산업용

곤충의 판매처가 적어 곤충 사육 참여에 애로를 겪었으나 유통회사에서 판매 알선 등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사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곤충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특히 사료 등 기능성 분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주식회사 운영이 안정되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식회사 설립이 곤충 사료 활용, 환경제 대체재 개발 등 산업화 촉진 계기가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곤충산업화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산업화 5개년 계획(2012~2016년)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으로 버무린 김치

다. 봉사단은 20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 400세대에 전달했다.

곡성군 자원봉사단체인 디딤들 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4일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치’를 담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함평천지 한우특구’ 2017년까지 연장

체형형 관광목적장 조성·한우 종축 개량 추진

함평군 ‘함평천지 한우산업 특구’ 지정이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됐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지정됐던 특구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식경제부의 승인으로 특구 지정 시한이 5년 연장돼 우량 한우보급과 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한우 브랜드인 ‘함평천지 한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품 브랜드화 사업, 우량암소 핵군 육성사업 등에 680여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특구 연장으로 함평군은 도로

교통법, 육의 광고물 등 관리법, 농지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등 각종 법령의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를 751억원까지 늘려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과 ‘함평천지 한우’ 명품화에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함평천지 한우’ 브랜드의 명품화와 고급육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연 2만8000두 분의 한우 종축 개량을 추진하고, 연 10개소에 친환경 축사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체형형 관광목적장 1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료 자

급력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브랜드 고급육 생산을 위해 우량암소 핵군 농가를 63농가 2800두에서 100농가 5000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 유통망을 확대하고 대도시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함평의 대표축재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한우특산물매장도 개설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특구 연장으로 ‘함평천지 한우’의 개량 효과가 배가되고 최고 품질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가족·연인에게 소망편지 띄우세요”

K-water 전남지역본부

승촌서 ‘우리강 나눔강’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승촌에서 위치한 영산강문화관에서 ‘다 함께 하는 우리 강(江) 나눔 강(江)’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소망 우편함’을 설치해 가족, 친구, 연인 등에게 연말연시 온정을 소망카드에 적어 소망 우편함에 넣는 소망이벤트도 연다.

개인 소망을 주소와 함께 적어 우편함에 투입하면 우편으로 발송해준다.

소망우편 발송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과 성별·세대를 아우르는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무비(Movie) 시즌 온(on)’ 행사를 연다.

25일 성탄절과 30일 연말에는 다양한 캐볼송을 합창·연주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승운 전남지역본부장은 “강문화관에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감성·문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여수시 불법 주정차 ‘꼼짝마’

6개 단속반 투입 특별단속

박람회 개최 이후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여수시는 5일 시내권 주요 간선 도로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17명으로 6개 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나 예고 방송 없이 즉시 단속 견인하고 심한 지역은 절대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속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8m이내와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모퉁이, 이중 주차 등 6대 불법 주정차행위와 여론지구 일방통행 위반 등이다. 적발 땀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키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 준수되던 주차질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됐다”며 “이번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 주차의식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전남 유기산 스넥과자 캄보디아서 대박

프놈펜서 5일간 판촉

6000만원 수출 성과

전남산 유기농 스넥 과자류가 캄보디아에서 대박을 터뜨렸다.

전남도는 “지난 1일까지 5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유기농 과자 스낵류·빵·음차·김차·옥수수차·양파음료 등 5개 품목 판촉전(사진)을 벌여 6000만원의 수출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캄보디아 왕립대학교 매장에 입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앞으로 수출전망을 밝게 했다.

이번 판촉전은 전남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출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1년내내 무더운 캄보

디아 기후여건을 감안, 김거리에서 쉽게 소비가 가능한 과자류와 음료류를 중심으로 판촉에 나선 결과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전남도는 이번 판촉전을 계기로 럭키마켓점과 병주르 마트, 키위 마트, 스마일 마트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를 교두보로 인접 국가인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 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동아시아 대륙의 지리적 중심국가인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연합국가들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시장 개척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목포대, 미안마 전문 농업인 양성 나서

목포대학교 농업분야 교수진들이 미안마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농업인 양성에 발벗고 나선다.

목포대학교는 “최근 한국 국제협력단 주관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목포대는 앞으로 원예과학과, 식품공학과 교수와 명예교수 등으로 팀을 구성, 미안마 네피도 지역에 위치한 예진(Yezin) 농업대학교에서 농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한국의 농업 재배기술과 식품 가공 기술을 이

전하게 된다.

앞서 목포대는 미안마 예진 농업대학교를 2차례에 방문해 예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석규 총장은 “이번 사업은 미안마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미안마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참례 화원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흥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사신이 너무 부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소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차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문의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Canon

수지의 착한 선물 페스티벌

행사기간 2012년 11월 19일 ~ 2013년 01월 10일

행사제품 구매 후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를 마친 고객 전원에게 특별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리무아 구스타운 정품 배터리 EOS 60D EOS 650D
- 어댑터 EF-EOS M 스피드라이트 90EX 정품 배터리 EOS M
- 정품 배터리 CGV 영화관람권 (5매) 록시팡 핸드크림 (150ml) PowerShot G1X·G15·S110 SX50 HS·SX500 IS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